



공생은 탈핵에서 부터

불교생명윤리협회 창립 세미나서 한목소리 공동대표 범용 스님 "원전은 자살폭탄과 같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 진도 9.0의 강진이 덮쳤다. 강한 쓰나미가 발생했다. 원전이 폭발했다. 그리고 1년, 원전 주변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주위에 날린 쓰레기들도 강한 방사선으로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3월 23-24일 서울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 행사는 9·11 사태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nuclear security) 강화가 이슈로 떠올랐다.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5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 건설은 화석에너지 고갈 대비 등의 이유로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척·영덕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건설이 추진 중이다. 원자력은 과연 안전할까? 이런 가운데 원전 등 핵에너지 사용은 인류가 스스로 설치한 자살폭탄과 같다. 일단 가동을 시작하면 인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끝수 없는 불'이라며 탈핵(脫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커지고 있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용·박광서)는 3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대표로 추대된 범용 스님은 학술대회에서 "문명의 이기가 일순간에 인간과 동식물은 물론, 생명체의 타진인 대지와 물 공기를 오염시키고 죽음의 땅으로 만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에너지로서의 핵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일본 동북부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이 잉태하고 있는 위험과 방사능 공포를 전세계에 확산시켜줬다"며 "인간의 탐욕을 줄여 환경파괴를 막고 청정 국토 화염세계를 장엄하는 일에 생명살림의 지혜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백산생명환경연대 갈수 스님은 추사를 통해 "민족의 명운과 인류장래를 위한 지중환 에너지 개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길이나 경제적 이익의 길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

리는 과감히 불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범용 스님은 주제발표 '탈원자력과 불교생명관'에서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방사능 유출이 국경과 생명종에 차별 없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합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각각의 '알아차림'을 지닌 인간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생명의 위기를 바로 보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생명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

에 더욱 귀한 것"이라며 "생명의 영원성은 없으며 모두 서로가 인연(因緣)할 뿐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에너지는 인간의 탐심의 산물이며, 독(毒)이라고 지적했다.

범용 스님은 "세계의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매우 높다. 원전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사고도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생명체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대체에너지 투자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희 환경재단 기획위원은 주제발표 '탈원전 독일을 가다'를 통해 독일의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핵위기를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 무(無)원자력발전소 시대'를 외치며 가장 먼저 '탈원전'을 실천하고 있다.

박 기획위원은 "독일의 결정은 '원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민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4일 독일 전국에서 11만명이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은 한 달

이 채 되지 않아 25만명으로 확산됐고 선거결과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박관희 위원장은 독일의 탈원전 선언 배경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독일 남서부 싱겐(Singen)의 한 마을을 예로 들며 태양광 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우드칩(wood chip)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교체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독일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단순한 '실형'이 아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독일정부의 확신과 일관된 정책, 내가 지금 1000원을 더 내더라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롤모델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탈핵을 주장했다. 정호영 교수(충북대)는 "핵발전과 핵폭탄이 동일한 연료주기, 동일 과정을 통해 생산·제조된다"며 "불교는 핵무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핵 발전을 폐기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도 한반도 탈핵 운동을 전개 중이다. 인드라망은 2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핵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 2012년 주요사업을 심의했다.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도 핵 산업을 녹색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핵에 대한 공부와 연대 사업에 참여해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생명존중이 아니다.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의의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존재와 존재 상호간 원만한 관계를 이뤄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탈핵은 그 노력의 하나로 모두를 살리는 자비행이다.

정호영 교수(충북대)는 "핵발전과 핵폭탄이 동일한 연료주기, 동일 과정을 통해 생산·제조된다"며 "불교는 핵무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핵 발전을 폐기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도 한반도 탈핵 운동을 전개 중이다. 인드라망은 2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핵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 2012년 주요사업을 심의했다.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도 핵 산업을 녹색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핵에 대한 공부와 연대 사업에 참여해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생명존중이 아니다.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의의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존재와 존재 상호간 원만한 관계를 이뤄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탈핵은 그 노력의 하나로 모두를 살리는 자비행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그날의 외침을...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3월 1일, 93주년 3.1절을 맞아 복지센터와 종로 일대에서 '1·3세대가 함께 하는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어르신과 청소년, 코이카(KOICA·국제협력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독립운동 재현 거리행진,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거리행진에 동참한 참여자들이 이날의 외침을 재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재환 기자 wanhollo@hyunbul.com

경주 황룡사 2027년까지 복원

경주시·국립문화재연구원서 복원계획 공개

경주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丈六尊像)이 2027년까지 33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복원된다. 경주시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월 28-29일 경주보문단지에서 황룡사 복원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2006년부터 진행한 황룡사 관련 기초연구성과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정비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반연구, 복원고증연구,

정비및활용, 종합계획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조인성 경희대 교수, 주수만 고려대 외대교수,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덕문 학예연구관의 주제발표 '황룡사 복원정비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은 2005년부터 실시한 황룡사 복원 마스터플랜 수집을 마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복원설계 및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황룡사 건축물 복원에 앞서 담장·중문 등 사역지 경계구조물의 설계 및 복원이 진행된다. 또, 목탑 설계와 연구센터 건립 등도 실시된다. 이어 2027년까지는 '황룡사 건축물 복원'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황룡사 9층 목탑과 금당이 복원된다. 황룡사 9층 목탑은 80m 높이로 지어져 신라 왕경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된다. 황룡사 9층 목탑과 함께 신라 3대 보

물로 알려진 장육존상(5m70cm)과 금당도 조성된다. 2035년까지 진행되는 '역사·문화환경정비' 단계에서는 동·서강당, 동·서승랑, 남회랑 등 부속건물을 비롯해 인근 역사·문화환경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룡사 동쪽 일대의 왕경유적지에는 스님들의 거주시설과 템플스테이와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이 들어선다. 소규모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일문화유산연구 양윤식 원장은 "황룡사의 종교적 경건함을 훼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통합선거법 3월 중회서 꼭 제정을"

호법분과위 검토 결정에, '실심' 비판 성명

조계종 중앙총회가 금권선거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3월 중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총회 호법분과위원회가 정계 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제정안 검토 의지를 밝혀 반축을 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조계)는 2월 2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선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든다. 투표를 위해 찾아 온 스님에게 여비를 주거나 선원 등에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돈선거 옹호 발언도 있었다. 이날 호법분과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

표 퇴휴, 이하 실심)는 28일 "중단 통합선거법 제정을 지지하며 일부 중앙총회의원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심은 "중단의 선거 폐단은 감출 수 없는 공공연한 사실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중단의 치부이다. 승단 교유의 여비 문화를 빙자한 대표와 매관매직 등 각종 폐해로 인해 중단의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승가 교유의 공의를 모아 반드시 3월 임시중앙총회에서 중단 선거법이 제·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878호 CONTENTS	
중단 학교폭력해법 교법사에게 듣는다	2
중합 전국비구대회 토론회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출가·열반절 법문	3
시방세계 3·1절 불교계 행사	5

대모집

세계제일 적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집중 5일 완성
저자: 법화중현(정홍교) 큰스님 직강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사태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지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공합, 태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뱀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교육전문도량 불교대학 천왕사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20번지 교무접수처 ☎ 031)421-1268 / 010-7415-0803 / 010-4803-8733